

‘한·미 선진원자로 협력증진 세미나’ 개최

한·미 양국 간 GEN IV 기술 분야 협력 모색



‘한·미 선진원자로 협력증진 세미나’ 전경



한·미 양국의 주요 참석 인사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미 선진원자로 협력증진 세미나’가 8월 16일(수)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아이리스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Edward Whitfield 전 미국 하원의원(공화당), Tim Frazier TA Frazier 대표이사 등 미국 측 관련 벤처 기업 관계자와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서울대 등 국내 산·학·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추진과 세계적으로 팔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데에는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양국 원자력산업계가 상호 기술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며 협력 가능성을 지속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5여년간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 I-NERI, GIF 등을 통해 선진원자로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진행해 왔다.”고 언급하고,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진 기술 개발을 위해 양국 간 민간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대표단은 세미나 후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과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8월 17~18일 이틀간 한국원자력연구원, 월성원자력본부, 두산중공업 등 우리나라 원전산업 현장을 시찰하였다.

한·미는 1956년 한미 원자력평화이용협정에 따라 원전산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2015년 4월 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 금년 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